

방송 1000회라고? 세상에 이런일이

‘세상에 이런일이’ 임성훈·박소현 20년간 최장수 MC 기네스북 등재 “시청자·제작진 열정 없었으면 못해”

“세상에 이런일이’가 1000회까지 오리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방송을 꼭 보내드려야지 하는 책임감으로 여기까지 왔네요.”

SBS TV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이하 ‘세상에 이런일이’)가 1000회 방송을 맞았다.

1998년 5월 6일부터 20년 동안 방송된 ‘세상에 이런일이’는 처음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이나 특별한 사연을 소개하되, 온 가족이 편하게 보는 전개 방식을 도입했다.

MC인 임성훈과 박소현도 첫 방송부터 같은 자리를 지킨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세상에 이런일이’ 녹화 스튜디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성훈은 “한 주에 아이템이 네 개는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신기한 일이 많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6개월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출연자들을 보면 행복은 정말 내 마음에 달린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시청자들에게 방송을 꼭 보내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방송의 힘이 묘한 것 같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임성훈은 “박소현씨가 결혼을 안 한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500회 때 크게 잔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500회를 더했다. 그래서 ‘일 내자’라는 의미로 1111회까지는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웃었다. ‘세상에 이런일이’는 신기한 이야기에서 따뜻하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박소현은 “매주 녹화에서 에너지 받았다. 그 에너지를 얻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소현은 “갈비뼈가 부러진 상황에서도 아픔을 참고 녹화에 참여한 적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나오기 힘들었지만 안 나오면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MC들은 공을 제작진과 시청자에게 돌렸다.

임성훈은 “제작진이 열정이 없으면 이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서 방송에 적합하지 아닌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헛수고 하



20년간 MC 최장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상에 이런일이’ 진행자 임성훈·박소현씨(위)와 그동안 방송됐던 장면들.

는 경우가 반이 넘는다. 우리는 그 과정을 전달하는 것 밖에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청자 제보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므로 시청자 참여가 최우선이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임성훈은 “프로그램이 오래가려면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삶에서 줄 수 있는 잔잔한 감동은 갈려 있어야 한다”며 “바탕에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만큼은

놓고 싶지 않다. 그걸 세련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숙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성훈과 박소현은 최장수 남녀 MC로 한국기록원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정훈 SBS 사장은 “임성훈, 박소현 MC와 1000회 동안 출연한 이웃들, 참여한 수많은 제작진이 없었으면 프로그램도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원로배우 김인태, 연기 열정 품고 잠들다

‘종이학’ ‘무인시대’ 등 출연 암·파킨슨병 투병 중 별세

원로배우 김인태가 12일 자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김인태는 그동안 전립선암, 파킨슨병, 근무력증 등으로 장기간 투병하다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김인태는 서라벌예술대학을 졸업하고 1954년부터 연극무대에 주로 섰다.

이후 드라마 ‘객주’, ‘조선왕조 500년 회전문’, ‘백범일지’, ‘꽃배를 찾아서’, ‘육방의 바다’, ‘종이학’, ‘하느님인 당신’, ‘무인시대’, ‘발리에서 생긴 일’, ‘아일랜드’, ‘사랑은 기억이 필요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와 영화 ‘에미’, ‘신석기 블루스’, ‘두근두근 내 인생’ 등 다수 작품에서 선 굵은 연기를 보여줬다.

투병 중이던 2010년에는 연극무대에서 동료로 만나 인연을 맺은 아내 백수련과 MBC TV ‘기분좋은 날’에 동반 출연해 뇌졸중으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아픔과 집안이 100억원대 빚을 진 사연 등을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제가 한두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연기를 봐주실 수 있는 여유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며 “끝까지



한 번 버텨볼 작정이다. 언젠가 성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몸을 추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연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자녀로는 영화 ‘부당거래’ 등에 출연하며 마찬가지로 배우로 활동하는 첫째 아들 김수현과 둘째 아들 김민준이 있다.

유족 측은 현재 빈소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 중이다. /연합뉴스

‘가왕’ 조용필 데뷔 50주년 기념메달 나온다

원조 한류 가수인 ‘가왕’ 조용필 데뷔 5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메달이 나온다.

한국조폐공사는 가수 조용필의 데뷔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메달을 제작, 다음 달부터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12일 밝혔다.

기념메달 앞면에는 공연장면이, 뒷면에는 공사의 변조 방지 특허기술을 적용한 데뷔 50주년 기념 엠블럼이 디자인됐다.

공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류문화 확산과 대중문화 발전을 위해 ‘조용필 데뷔 50주년 공식 기념메달’

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용필은 1968년 데뷔해 촛불, 고추장 자리, 모나리자, 여행을 떠나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그의 음악은 국내 대중가수 최초로 교과서에 수록됐으며, 지금까지 모두 19개의 정규앨범을 발표하는 등 끊임없는 음악 활동으로 대중의 사랑받고 있다.

최성호조폐공사 영업개발처장은 “기념메달에 가왕 조용필이 대중음악사에 남긴 수많은 상징성을 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테마기행 길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미야
9	30 KBS 뉴스	00 차대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시간(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동행(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오늘의 탐정(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끝까지 사랑(재)	00 12 MBC 뉴스 25 헬로킴지 동물교실 50 UHD 맨도롱 또똔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판다랑 55 솜바꼭질(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뛰뛰뛰 뚱그린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스페셜	00 또봇 V 30 주간연예수첩	15 할머니네 동강아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속보이네TV 인사이드	55 할머니네 동강아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숨터	00 오늘의 탐정	00 시간	00 친애하는 판사님께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재동	10 해피투게더 1~2부	10 구내식당-남의 회사 유랑기	10 무학행 1~2부
12	0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5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스포츠 다이어리 55 문화사책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5:30 통일의 길 (윗동네 스포츠)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19:00 레이디버그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	19:30 EBS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장수의 비밀	19:5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다큐 시선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인생은 축제다, 멕시코 4부 지금, 여기, 우리 행복한 멕시코〉
08:30 미니특공대 X	14:45 로보가 풀리	21:30 한국기행
08:45 칼랄라 뽀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세상 끝 고향을 가다 4부 내가 이곳에 사는 이유〉
09:00 두다다콩	15:15 출동! 파파마 삼총사	21:50 다큐 시선
09:30 원더볼즈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30 한국기행(재)	16:30 칼랄라 뽀우(재)	25:05 지식채널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연극 몰김치와 멀치 고추장볶음〉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콩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활용만 잘 한다면 대박이 날 수 있다. 48년생의 미가 없느니라. 60년생 점점 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감안하라. 72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 84년생 전체적인 형편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하라. 행운의 숫자 : 54, 96</p>	<p>午 42년생 바라던 일이 흡족하게 이루어지겠다. 54년생 못 본 채고 있는 것이 더 낫다. 66년생 진정한 자신이란 희생이 따르는 법이다. 78년생 우발적이라면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다. 90년생 만나거나 접하는 모든 것의 인연이 짙겠다. 행운의 숫자 : 16, 67</p>
<p>丑 37년생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겠다. 49년생 떨어져 있어 서 인연이 박하다. 61년생 관련 사항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73년생 확대 해석하거나 조기 판단하면 곤란하다. 85년생 모순을 인식했다면 빨리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90, 38</p>	<p>未 43년생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라. 55년생 다투면 손해수요, 양보하면 복이 되리라. 67년생 의심스러운 점은 꼭 문의해 봐야 한다. 79년생 부족함을 채우는데 있어 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라. 91년생 외부적 환경이 변하면서 공격적인 목표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59, 70</p>
<p>寅 38년생 추진하고 있던 일이 지연되는 위상이다. 50년생 오랫동안 갈구하여 왔던 힘의 기반이 생긴다. 62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성과가 더 크다. 74년생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된다. 86년생 방도를 찾지 못해서 몹시 당황하는 모양이리라. 행운의 숫자 : 14, 86</p>	<p>申 44년생 명분만으로는 공허하므로 실속도 찾아라. 56년생 무가치하다면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느니라. 68년생 어려움은 잠시일 뿐이니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하라. 80년생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92년생 꽤 도난마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25, 45</p>
<p>卯 39년생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파악 해야겠다. 51년생 미진하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63년생 끝까지 가보는 것도 괜찮다. 75년생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이 따로 있느니라. 87년생 사소한 이해관계에 집착하다보면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5, 78</p>	<p>酉 45년생 다양한 기회와 조건들이 보인다. 57년생 정성과 솜씨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리라. 69년생 소신을 바탕으로 한 주관이 절실한 때이다. 81년생 종일 내리는 소나기는 없는 법이다. 93년생 전혀 이해 할 수 없어서 대단히 혼란스럽겠다. 행운의 숫자 : 58, 48</p>
<p>辰 40년생 빨리 정산할수록 이익이다. 52년생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64년생 기본에 충실했을 때 진행에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76년생 선택하기에 따라서 영욕과 부침이 온니차자가 될 것이다. 88년생 살펴만 보아도 쉽게 파악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3, 10</p>	<p>戌 34년생 전적인 신뢰는 소모적인 결과를 부른다. 46년생 목전의 동세를 과신함은 참으로 곤란하다. 58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한 후에 행하는 것이 좋다. 70년생 변동의 폭이 상당히 될 것이다. 82년생 필연적이라면 적극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86, 37</p>
<p>巳 41년생 가치를 인식하게 되리라. 53년생 전혀 자질이 없음을 것이니 계획대로 행하라. 65년생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어야만 영광을 유지하게 되리라. 77년생 여러 가지 구별이 확인해지리라. 89년생 오늘의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79</p>	<p>亥 35년생 부담스럽다면 피하는 것이 낫겠다. 47년생 새옹지마, 전화위복의 이치로다. 59년생 기교한 기운이 휘몰아치니 이변이 예상된다. 71년생 절차대로만 이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83년생 막연한 사항이라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행운의 숫자 : 43, 54</p>